

TV 2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00 굿모닝! 채널A 1~2부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워험한 여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8 00 생방송 김승주의 모닝카페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태양의 신부>
9 00 특종 연예인사이드(제) 55 이명박 대통령 시년연설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복희누나> 40 여유만만	30 MBC 뉴스 55 대통령 신년연설	10 좋은 아침
10 25 너는 내 운명(제)	00 2012 대통령 신년국영연설 2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지구촌 뉴스	30 MBC특선다큐엔터리 <9988에 도전한다 위암 극복비결, 조기발견 과식이요법>	0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20 SBS 뉴스
11 00 다섯 남자의 맛있는 파티	00 여성공간 55 바른말 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세상의 모든 다큐 <대륙간 충돌 아메리카 대륙>	00 MBC 여성드론 워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10 채널A 뉴스와 경제 20 컬러 오브 우먼	00 KBS 뉴스12	10 월화드라마 <브레인>(제)	00 MBC 뉴스 15 장애인 희망프로젝트 <함께사는 세상>	00 SBS 12뉴스 30 신년기획 열린토론회 1부 선택 <2012 오동치는 민심>(제)
1 30 채널A 다큐스페셜	00 스키아웃(제) 55 바른말 고운말(제)		05 통일전담대 45 시주에이선 휴먼다큐 그날 스페셜	30 얼마쯤 아빠랑 지구한바퀴
2 30 너는 내 운명(제)	00 KBS 뉴스 10 필통(제)	30 체험! 삶의 현장(제)	55 MBC 네트워킹 특선 <황금의 제국 1부>	30 SBS 뉴스 10 네트워킹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울지들의 반란 앙코르(제)	05 콘서트 필통(제) 55 바른말 고운말(제)	00 KBS 뉴스타임 05 주류링 동물탐정(제) 35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	50 MBC 뉴스	10 우리아이기가 달라졌어요(제)
4 30 노컷! 개그시대(제)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이름다운 TV>	00 TV 유치원 30 키오카(초회)	00 뽀빠이 아이조아 30 와!라! 편의점	00 매일얼얼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박종진의 시사토크 <괘도난파>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이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00 MBC플러스 특선 <데스캠프 24시>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네모(제)
6 00 채널A 뉴스네트워크 20 울지들의 반란 앙코르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6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00 6시 뉴스 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10 시사타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내말 꽃님이>
7 20 너는 내 운명 40 불멸의 국가대표(제)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45 스타인생극장 <싸이>	45 일일시트콤 <하이리! 짧은 다리의 역습>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2012 런던올림픽 특집 다큐 <준비된 영웅들>
8 50 컬러 오브 우먼	25 일일연속극 <딩신뿐이야>	20 세계는 지금 55 위기탈출 넘버원	15 일일연속극 <오늘만 같아라> 55 MBC 뉴스데스크	55 월화드라마 <살리던 초한지>
9	00 KBS 뉴스9	55 월화드라마 <브레인>	55 MBC참사50주년 특별기획 <빛과 그림자>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0 00 뉴스A 50 천상의 화원 공배령(제)	00 신년기획 가요무대	00 KBS 뉴스라인 40 집중인터뷰 이, 사, 람.	0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1	00 뉴스&스포츠 20 박종진의 시사토크 <괘도난파>	25 KBS 뉴스 35 KBS 특선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특강	25 나이트라인 45 영광의 도전 내일은 챔피언
12	00 뉴스&스포츠 20 박종진의 시사토크 <괘도난파>	25 KBS 뉴스 35 KBS 특선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특강	25 나이트라인 45 영광의 도전 내일은 챔피언

오대규 “‘신기한’역 맡은 후 성격이 유해졌어요”

‘사랑의 향기’ ‘신비의 거울 속으로’ ‘부자 유진’ 등에 출연할 때만 해도 그는 청춘스타였다. 극중 역할, 인기와 보조를 맞춰 그의 실제 성격도 당시에는 ‘한 걸음’으로 통했다. “솔직히 많이 예민했고 까칠했죠. 팬이 누가 다가와도 한발 물러설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그가 극중에서 맡은 역은 돈 한 푼 없는 무능력남에 바보스러울 정도로 천진난만한 인물이다. “이번 역을 하면서 정말 몸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전엔 정말 멋진 부자집 아들 역만 했구나 하고 새삼스럽습니다.(웃음)”

오대규(43)<사진>. SBS 주말극 ‘폼나게 살거야’에서 치킨집 배달부로 근근이 연명하며 살지만 새하얗고 따뜻한 마음과 밝은 미소를 가진 ‘신기한’을 연기 중인 그를 최근 을지로에서 만났다.

한자릿대 시청률에서 고전 중이던 ‘폼나게 살거야’는 지난 11일 그가 육상에서 몸을 던지는 내용이 방송되면서 두자릿대로 올라서며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제 안의 ‘신기한’을 발견하며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신기한을 연기하면서 성격이 많이 유해졌고 푸근해졌어요. 실제 신기

한처럼 많이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예전 같으면 절대 상상도 못할 오대규의 모습 이죠.”

단적으로 과거에는 남들에게 곁을 잘 내주지 않는 표정으로 무장했다면 이제는 팬들이 달려들어도 환하게 웃으며 사람 좋은 얼굴을 보이게 됐다.

“시청률을 떠나 이 작품을 통해 제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 연기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물론 처음에 고민은 했다. 생전 처음 맡아 보는 극빈층 역할에 순진한 인물이라 어디 서부터 변화를 줘야 할지 난감했다. ‘변장’을 하고 나니 연기에는 절로 몰입이 됐다. 또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도 돈이 없는 설움을 몸으로 겪었기에 신기한의 절망스러운 처지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턱 약관절로 인해 1997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 일을 전혀 못했어요.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인데 수입은 한 푼도 없고 치료비로 많이 쏟아부어야 할 때였죠. 두 대를 굴리던 차도 다 팔아야 했고, 치료의 끝은 안 보이는데 집에 매일 있으니 아내에게도 못할 짓이라 매일 밤을 배회했어요. 어느 순간 장롱 아래 동전까지 썩살 끊어모으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군요. 어디서부터 가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시 세 끼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조강지처클럽’ ‘수상한 삼형제’에 이어 이번 작품으로 문명남 작가와 3타석 연속으로 호흡을 맞춘 그는 신기한의 캐릭터가 문 작가의 남다른 관찰력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TBN, 지난해 5대 성과 발표

TBN한국교통방송 광주본부(본부장 김홍근)는 지난 29일 2011년 5대 성과를 선정, 발표했다.

TBN한국교통방송광주본부가 발표한 5대성과를 보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

한 방송 캠페인 1080여회 송출 ▲소년소녀 가장 돕기 특집 공개방송 제작 등이다.

또 ▲나의 운전 취득기 방송 코너 제작 ▲녹색의 꿈 달려라 전기자동차특집 제작 등이 포함됐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일(음 12월 9일 壬戌)

子	36년생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할 중대사가 발생한다. 48년생 표상이나 수상을 할 수 있다. 60년생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자제하라. 72년생 진실이 와전될 수 있으니 명확한 의사 표시하라. 84년생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다가는 손가락질을 받는다.행운의 숫자 : 04, 45	午	42년생 질로 승부를 내야 하나니라. 54년생 새로운 부부의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66년생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관련된 것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겠다. 78년생 권의만을 추구하지 말고 집념의 불꽃을 피우자. 행운의 숫자 : 36, 56
丑	37년생 서둘러야 할 일이 생긴다. 49년생 높은 호령과 다재로운 덕담을 듣겠다. 61년생 경 먹고 알 먹는 좋은 일이 생긴다. 73년생 교유이란 사람의 타고난 가치에 윤기를 더해 주는 것이니라. 85년생 향후의 상황 전개가 중요하니 미리 대비하라. 행운의 숫자 : 76, 88	未	43년생 하늘을 대하고서 한 점 부끄러지 않은 이가 되자. 55년생 사소한 것들은 차치하고 주된 것에 공력을 들여라. 67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화를 당하기 쉬우니라. 79년생 때가 되었으니 과감히 처리하라. 행운의 숫자 : 98, 65
寅	38년생 모자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윤행해도 대강하는 사람보다 낫다. 50년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62년생 작은 차이가 미래에는 천리가 될 것이다. 74년생 한 곳에서 매진할 때다. 행운의 숫자 : 46, 29	申	44년생 애매하면 직접 비교해 보는 것이 상책이다. 56년생 허황된 공상은 정신적 사치임을 알아. 68년생 큰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지겠다. 80년생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후회가 없다. 행운의 숫자 : 58, 13
卯	39년생 속 써히는 자식이 있겠다. 51년생 화합은 부를 일으키며, 불화는 부를 파멸시킴을 알아. 63년생 정병,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객관적인 평가를 들어 보라. 75년생 변화는 새로운 발전을 기약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4, 54	酉	45년생 결과는 오랜 기간이 지나간 후에야 나타난다. 57년생 비단 옷을 입고 밭길을 거니는 형상이로다. 69년생 보자마자 황금빛 달아나는 이를 주목하라. 81년생 시비에 휘말려라 보면 대의를 도모하기 힘들다. 행운의 숫자 : 05, 82
辰	40년생 스스로 아는 이는 남을 원망하지 않느니라. 52년생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으리라. 64년생 의심은 피아간에 소모적인 신경전만 야기할 수 있다. 76년생 변동된 사형은 꼭 알려 줘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2, 50	戌	46년생 알차고 실속 있는 것을 택하라. 58년생 오행은 열린 마음으로 풀어나가라. 70년생 못난 사람이라도 다 쓰일 때가 있는 법이다. 82년생 무리한 요구에 대해 매끄럽게 거부하여 반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87, 47
巳	41년생 잘난 체하는 이는 자기 수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니라. 53년생 준비를 철저히 하면 오히려 득이 된다. 65년생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밝히면 된다. 77년생 뒤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81, 01	亥	47년생 지속적이러면 큰일도 이룬다. 59년생 상대에게는 너그럽게 용서하되 자신의 허물은 용서하지 말라. 71년생 비교 대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본래의 것의 진가를 알게 된다. 83년생 진정한 명예심을 가져라. 행운의 숫자 : 30, 7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제20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경비록대회

결승국 총보(1~196)

김광식 5단 첫 우승컵을 들다

黑 김광식 5단 (주)송림

白 조영배 5단 (주택관리사회)

강산이 두번은 변한다든 20회째를 맞는 영광의 광일배 우승컵은 결국 관록의 강자 김광식 5단이 차지했다. 조영배 5단은 2년 연속 결승에 진출하며 투지를 불태웠지만 상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상대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결정적인 대목에서 주춤주춤 물러서버린 것이 승부호흡을 흐트린 최악의 결과가 되었다.

그동안 이 대회에 출전하며 저조한 성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김광식 5단으로서 명예를 회복한 귀중한 승리로 처음으로 코를 뚫은 이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초반은 하반전투에서 백 60으로 끊은 수가 이상한데 75로 끊지않은 백 74가 또 대박수여서 흑 95까지 백이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다. 그런데 김광식 5단은 자만한 나머지 백 96 때 98에 쫓혀 끝장날 기회를 놓치고 백 110까지 연결시켜 주고 백에게 추격의 실마리를 만들어준다. 조영배 5단이 후반 초읽기에 몰려 162로 좌변에 쫓기지 않고 하변에 끝내기만 했더라도 승부는 알 수 없었다. 행운도 김광식 5단의 편이 된 한판이다. 흑 195 수 끝. 흑 불계승.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니하오 풍구위	오하오우 니혼고
<p>May I take your Photograph? 당신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p> <p>A : May I take your Photograph, Jenny? B : Please don't. A : Why not? You're beautiful. B : Well, I do not consider myself photogenic.</p> <p>A : 당신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제니? B : 제발 찍지 마세요. A : 왜죠? 아름다우신데. B : 음, 저는 제가 사진발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p> <p>* take someone's photograph[photo/ picture] = take a photograph[photo/ picture] of someone. * photogenic : 사진촬영에 적합한, 사진발이 좋은</p> <p><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p>	<p>沈魚落雁(침어낙안) 잠질 침, 물고기 어, 떨어질 락, 기러기 안</p> <p>침어낙안(沈魚落雁)은 미인을 보고 물 위에서 놀던 물고기가 부끄러워서 물속 깊이 숨고 하늘 높이 날던 기러기가 부끄러워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용모를 이르는 말이다.</p> <p>중국 춘추시대 진(晉)나라 헌공(獻公)의 애인 여희(麗姬)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녀를 보면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물고기는 물속으로 깊이 숨어버리고, 기러기는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대열에서 떨어지고, 환한 달은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고, 꽃은 부끄러워 시들었다고 여희의 미모를 극찬한 고사에서 온 말이다.</p> <p>[출전] <침자> 제물론</p> <p><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p>	<p>走鋼絲 zǒu gāngsī 줄타기</p> <p>철사(鋼絲)를 걸어가네요(走). 줄타기입니다. 줄타기 공연을 走鋼絲表演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 '줄타기 외교'란 말이 있습니다. 적대 관계나 이해관계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서, 그 두 나라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꾀하려고 벌이는 외교.</p> <p>중국어 관용어 쓰임 走鋼絲는 '위험한 일'의 의미와 함께 '여러 능력을 발휘해 집단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의미'인 우리의 줄타기 외교와 비슷한 쓰임이 있습니다.</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お客様、これはどうですか。 손님, 이것은 어떻게습니까</p> <p>A : あのう、カメラが買いたいです。 B : お客様、これはどうですか。 A : 使い方が簡単なら、買いたいです。 B : これは使い方が簡単なので、使いです。</p> <p>A : 저어, 카메라를 사고 싶습니다. B : 손님 이것은 어떻게습니까. A : 사용법이 간단하면 사고 싶습니다. B : 이것은 사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습니다.</p> <p><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p>